2007. 10. 1 제176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

2007. 10. 1 제176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뉴욕市 혼잡통행료 도입 계획

도시경영·경제

1. 도시 중심구(區)에 재정 지원 확대 (베를린)

2. 'FF형 행정조직' 재검토 (일본 후쿠시마縣)

3. 44개 사업 외부 위탁 (일본 고치市)

디지털도시

4.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활용 (베를린)

복지·문화

5. '오픈하우스' 행사 개최 (런던)

6.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확대정책 (런던)

7. '제10회 아시아·태평양 문화 축제' 개최 (베를린)

8. 'Young IFA 2007' 개최 (베를린)

9. 청소년 문제 해결에 어른의 책임 강조 (베를린)

10. 보육원과 유치원 기능을 합친 어린이집 등장 (도쿄)

목 차

도시환경

11. 시청 및 산하기관 청사를 녹색빌딩으로 전환 (런던)

12. '환경 CBO' 발행 (도쿄)

13. 컨벤션센터를 친환경 빌딩으로 전환 (로스앤젤레스)

14. 애완견 배설물 처리봉투 무료 배포 (베를린)

15. 도쿄만 정화실험 실시 (도쿄)

도시교통

16. 이동경로 검색서비스 강화 (런던)

도시계획·건설·주택

17. '디자인대사관' 설치 (런던)

18. 저소득층에 버스요금 50% 할인 (런던)

방재·안전

19. 수도관 내진화 추진 (일본)

[벤치마킹 사례]

뉴욕市 혼잡통행료 도입 계획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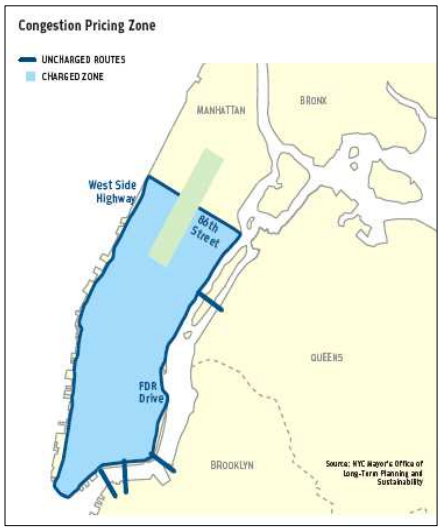
○ 뉴욕市는 맨해튼 지역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실행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음.

- 뉴욕市 혼잡통행료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항 목	특 징	
부과구간	맨해튼 86번가 남쪽 지역(맨해튼 지역을 둘러싼 도로는 제외)	
부과시간	주중 오전 6시~오후 6시(토·일요일 제외)	
부과금액	승용차	· 8달러(약 7400원)/일(혼잡통행료 경계구간 통과 시) · 4달러(약 3700원)/일(혼잡통행료 징수구간 내부 통행)
	트럭	· 21달러(약 1만 9500원)/일(혼잡통행료 경계구간 통과 시) · 5.5달러(약 5100원)/일(혼잡통행료 징수구간 내부 통행)
부과방법	· 전자요금징수시스템(E-Z 패스) · E-Z 패스 미소유자는 전화, 인터넷, 기타 가맹점에서 48시간 이내에 지불(카메라 단속시스템 설치)	
E-Z 패스 사용자 혜택	혼잡통행료 제도를 시행 중인 교량이나 터널 통행료를 E-Z 패스로 지불하고 다시 혼잡통행료 구간을 지날 경우 최고 8달러(약 7400원)까지 환불함.	
면제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버스, 택시	
수익금 활용	수익금 전액을 교통체계 개선에 활용	
운영주체	뉴욕市 교통부가 주관하고, 시설물 설치 및 운영은 위탁업체가 담당	
예상효과	·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내 통행속도 7.2% 개선(전일 속도 기준), 총 통행거리는 6.3% 감소 · 혼잡통행료 경계구간(맨해튼 상부) 내 통행속도 약 9% 개선(전일 속도 기준)	

– 관계당국은 혼잡통행료 시행 첫해에 3억 8000만 달러(약 3600억 원), 2030년에 9억 달러(약 8500억 원)의 수입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기존의 통행패턴을 감안할 때 뉴욕시민이 지불하는 통행료가 수입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맨해튼 지역의 혼잡통행료 징수구역

– 市는 혼잡통행료 제도 시행시기를 2009년 3월로 잡고 있으며, 시정부와 주정부 예산은 가급적 피하고 중앙정부 예산 및 민간자본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을 우선적으로 충당할 계획임.

○ 최근 미국 교통부는 교통혼잡 완화방안으로 뉴욕市의 혼잡통행료 제도 도입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도시 파트너십 협약'(UPA: Urban Partnership Agreement)[1]을 통해 뉴욕市와 뉴욕州에 총 3억 5450만 달러(약 3400억 원)를 지원해 혼잡통행료 제도를 포함한 교통 부문 프로젝트에 사용하도록 함.

– UPA의 재정지원 전제조건은 2009년 3월까지 혼잡통행료 제도를 시행하고 최소 18개월간 혼잡통행료 제도를 시범운영해야 하는 것임.

·혼잡통행료 제도 도입 전에 뉴욕시장이 제안한 버스체계 개선사업을 완료해야 함.

·혼잡통행료 제도 도입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내 차량의 총 통행거리를 18개월 이내에 6.3% 줄여야 함.

·외국인 차량 및 국제기구 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말아야 함.

1) 2006년 5월 16일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도로와 철도 등을 포함하는 미국 전역의 교통 부문 혼잡 완화를 위한 종합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핵심사업으로 '도시 파트너십 협약'(UPA: Urban Partnership Agreement)을 발표함. UPA는 미국 교통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미국 내 주요 대도시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혁신 프로젝트를 발굴해 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특히, 이른바 '4T'라고 불리는 혼잡통행료(Tolling), 대중교통(Transit), 재택근무(Telecommuting), 기술(Technology)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교통혼잡 완화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해설 및 평가>

○ 강도 높은 교통혼잡 완화프로그램을 도입함.

- 최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미국의 정책적 노력은 UPA에서 보는 것처럼 가격정책을 통해 자가용 운전자의 통행패턴을 변화시킴으로써 교통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자동차 중심 문화의 미국에서 혼잡통행료 제도와 같은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정책 도입이 제기되는 이유는 혼잡통행료 징수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임.
  ·또한 다양한 교통수요 관리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데에도 원인이 있음.

○ 혼잡통행료 제도 도입과 대중교통 체계 개선사업을 동시에 병행

- 혼잡통행료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자가용의 대체 교통수단인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 선결조건임.
  ·뉴욕市도 혼잡통행료 제도 도입 못지않게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교통혼잡 완화 노력이 필요함.

- 서울시의 교통혼잡 문제가 도시경쟁력 저하의 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음. 또한 대기오염 심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자가용의 통행 급증이 꼽히고 있음.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벤치마킹 시행방안>

○ 서울시 특성에 맞는 혼잡통행료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교통수요 관리프로그램을 동시에 시행함.

- 서울시에서는 이미 남산 1·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의 혼잡통행료 제도 시행효과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확대 시행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혼잡통행료 제도 하나만으로는 가시적인 교통혼잡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교통수요 관리프로그램을 동시에 실시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벤치마킹 기대효과>

- 서울시와 같은 초고밀도 도시에서는 자가용 이용 억제 정책을 펴지 않고서는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움.
  ·혼잡통행료 제도와 같은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정책 도입은 교통여건 개선과 원활한 도시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최첨단 혼잡통행료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경우 교통정책의 선두 도시로서의 서울시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일 수 있음.

/고준호 도시교통부 부연구위원(jko@sdi.re.kr)

도시경영 · 경제

1. 도시 중심구(區)에 재정 지원 확대 (베를린)

○ 베를린市 도시개발부는 국가 행정기관이 있는 베를린 미테(Mitte)區가 행정기관 주변 도로를 정비할 수 있도록 향후 2년 동안 400만 유로(약 48억 원)를 특별 지원하기로 결정함.

- 이 지역 도로가 대부분 별 이상이 없고 도로 정비를 위해 시의회가 10만 유로(약 120억 원)를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테區에 특별 지원하는 이유는, 미테區가 독일 수도의 중심부로서 잘 정비돼야 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기 때문임.
  ·중앙역 주변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고, 건설 프로젝트가 많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 부하가 많이 걸림.
  ·미테區는 베를린市 도심에 있는 공원 중 가장 큰 티어가르텐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녹지공간인 루스트가르텐의 관리에 상당한 재정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정비에 많은 재정을 할당할 수 없는 상황임.

- 베를린市 도시개발부는 중앙역과 총리 관저 및 의회건물 사이에 있는 강변 공원의 쓰레기 처리 비용도 지원하기로 함.
  ·향후 매년 3만 유로(약 3600만 원)를 지급할 예정임.

- 市는 다른 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해 시행 중임.
  ·학교 개축과 어린이 보육원 운영 관련 비용과 태풍 피해를 입은 나무를 다시 심는 데 드는 비용을 市에서 특별 지원함.

(www.tagesspiegel.de/berlin/Berlin-Mitte;art270,2371125)

2. ‘FF형 행정조직’ 재검토 (일본 후쿠시마縣)

○ 일본 후쿠시마縣의 재무행정개혁 추진본부는 縣이 도입한 ‘FF형 행정조직’을 재검토하고 2008년에 조직을 개편할 방침임.

- FF형 행정조직 제도는 ‘균일하고(Flat) 유연한(Flexible) 행정’을 목표로 2003년에 도입됨.
  ·과장과 계장 직위를 없애고, 과(課) 대신 ‘영역’, ‘그룹’을 신설하고 과장을 참사(參事)로, 참사 이하는 그룹원으로 부름.
  ·분야별 제휴 강화나 서비스의 신속화를 목적으로 현재는 36개의 영역, 166개의 그룹이 있음.

- 그러나 현행 조직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참사와 그룹원 사이에 중간 관리직이 없어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아, 향후 관련 전문가 등으로 행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임.

(headlines.yahoo.co.jp/hl?a=20070906-00000133-mailo-l07)

(마이니치신문, 2007. 9. 6)

3. 44개 사업 외부 위탁 (일본 고치市)

○ 일본 고치市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3745개 사업 가운데 44개 사업을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재정 부족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힘.

- 향후 3년간 190억 엔(약 1520억 원)의 재정 부족이 예상돼 경비 절감과 인원 감축을 내건 행정개혁 실시계획을 2007년 3월에 마련한.

- 이번 행정개혁안은 기존 계획에 근거해 수립했으며 44개 사업을 민영화, 지정 관리자 선정, 민간 위탁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맡김.
  ·일부 보육원 및 복지시설은 완전히 민영화하고, 기념관 등 5개 시설은 공모를 통해 지정 관리자를 선정함.

·쓰레기수거 업무는 부분적으로 민간에 위탁하고, 수도요금이나 세금 징수 업무 등도 민간 위탁으로 전환할 예정임.

- 민간 위탁을 통해 공무원의 업무량과 직원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headlines.yahoo.co.jp/hl?a=20070905-00000228-mailo-l39)

(마이니치신문, 2007. 9. 5)

디 지 털 도 시

4.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활용 (베를린)

○ 베를린市 경제·기술·여성부 장관은 혁신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을 통해 시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소개함.

- 市는 2007년 8월 27일 장관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웹사이트(www.direktzu.de/Wolf)를 구축함.
  ·웹사이트 방문객은 장관에게 질의할 수 있고, 장관이 어떤 안건을 상정해야 할지 함께 결정할 수도 있음.

- 웹사이트에서의 직접 대화는 市 집행부와 시민 사이를 더욱 가깝게 이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베를린 시민은 웹사이트를 통해 의견과 비판을 표명할 수 있음.
  ·웹사이트에서의 정치적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와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장관의 신속한 답변도 받을 수 있음.

- 베를린 소재 대학의 학생들과 학자들이 주도한 프로젝트로, 2006년 10월 이후 10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함.
  ·시민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8/27/84157/index.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접근 편의성 제고, 정보 평등주의 실현과 함께 전자정부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고려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서울시도 서울시 행정 서비스 개선에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서울시 홈페이지에 '천만상상 오아시스', '시민 모니터',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토론 게시판을 제공함.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시민과의 대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과의 신뢰성 유지가 중요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

/장무경 디지털도시부 부연구위원(mkjang@sdi.re.kr)

한줄 뉴스

- 샌프란시스코市,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2007년 8월 29일 'Spare the Air Day' 프로그램 시행
  ·이날 하루는 시민이 대부분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 로스앤젤레스市, 보건 및 환경정책을 도시계획과 연계한 아이디어로 남부 지역에 2년간 패스트푸드점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안 검토
  ·이 지역 성인의 30%, 어린이의 29%가 비만이며, 당뇨병 환자도 11.7%나 돼 전체 카운티 평균보다 훨씬 높아

- 영국 보수당, 임대주택 거주자의 반사회적 행동을 막기 위해 거주한 지 5년 동안 건전한 사회활동을 하면 이사갈 때 임대주택 가격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제안
  ·임대주택 밀집지역이 도시 슬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혀

복 지 · 문 화

5. ‘오픈하우스’ 행사 개최 (런던)

○ 매년 런던에서 개최되는 ‘오픈하우스’ 행사는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 유명 건축물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로, 2007년에는 건축학적 가치가 뛰어난 건물 600개소 이상이 2007년 9월 15~16일 공개됐음.

- 행사 취지는 도시 곳곳에 있는 건물의 미적 가치를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창조적인 설계 아이디어와 예술의 만남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높이는 데 있음.
  ·민간단체인 오픈하우스가 주관하며 BBC London, 런던교통공사, 32개 구청 등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후원함.

- 행사 웹사이트에서 우편번호나 건물명을 입력해 행사에 참여한 건축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음.
  ·행사에 참여한 주요 건물은 빅토리아 시대의 테라스형 건물을 이산화탄소 무배출 친환경 건물로 개조한 ‘3 Acorns Retro Eco-House’, 폐지하철을 재활용해 만든 예술 스튜디오 ‘The Village Underground’, 공간이 부족한 도심 내 육아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지붕 유아원’ 등임.

(www.bbc.co.uk/london/content/articles/2007/09/06/openhouse2007_feature.shtml)
(www.londonopenhouse.org/london/find)

>>> 전문가 검토의견

- 문화 명소나 문화시설,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오픈 데이 행사는 여러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음.
  ·런던市 인접 도시인 파리市 또한 같은 기간에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베를린市나 토론토市 등도 유사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서울시 역시 2008년 ‘문화의 밤’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데, 행사일 밤에 문화행사, 문화 명소 및 고궁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지금까지 밤에는 개방하지 않던 다수의 시설을 시민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 문화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됨.

/나도삼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kuber21@sdi.re.kr)

한줄 뉴스

<브라질>

- 리우데자네이루市, 빈민층 200명에게 2007년 9월 10일부터 3개월 간 창업 및 사업 확장방안 등 창업 관련 무료교육 실시
  ·이외에도 월 100헤알(약 4만 5000원)의 보조금 지급

- 상파울루市, 2007년 9월 22일 오후 2시부터 23일 오후 2시까지 24시간 동안 '스포츠 뒤집기' 행사 개최
  ·시민과 관광객에게 운동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하루 평균 30분 이상 운동하도록 권장

6.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확대정책 (런던)

○ 런던시장은 장애인이 모든 스포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신체활동 실행계획'(A Sport and Physical Activity Action Plan for Disabled People in London 2007~2012)을 발표함.

- 이 계획은 대런던위원회(Greater London Authority)와 스포츠 잉글랜드(Sports England), 런던 장애인 스포츠 포럼(London Sports Forum for Disabled People)이 공동 작성함.

- 16세 이상 장애인 중 9%만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21.3%)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 이번 계획을 마련함.

- 현재 이 계획은 '참여적이고 활동적인 스포츠'(Inclusive and Active)라는 표어 아래 추진 중임.

(www.london.gov.uk/mayor/equalities/inclusive-active/index.jsp)

7. ‘제10회 아시아·태평양 문화 축제’ 개최 (베를린)

○ 베를린市는 ‘아시아·태평양이 세계를 바꾼다.’는 모토 아래 2007년 9월 10~23일 ‘제10회 아시아·태평양 문화 축제’를 개최함.

-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축제로 아시아·태평양의 경제, 학문, 문화, 사회 분야 주제를 다룸.
  ·250여 개 행사가 열렸으며, 주요 행사내용은 경제 컨퍼런스와 전시회, 콘서트 및 퍼포먼스, 패션쇼, 필름 페스티벌임.

- 베를린 시장은 “아시아·태평양 주간을 통해 세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지 느낄 수 있고, 지구촌 이웃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축제 의도를 설명함.

- 독일 시장에서 매년 증가하는 아시아 제품뿐 아니라 도요타와 현대 등 아시아 기업의 활발한 진출, 국제기구에서 아시아 국가 출신인 WHO 사무총장 및 UN 사무총장의 영향력 증대 등이 축제 개최 배경으로 작용함.
  ·지속가능한 발전과 창의경제의 촉진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 2007년 9월 10일 콘서트하우스에서 개회식을 거행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다자간 경제협력에 관한 컨퍼런스’, ‘New York: usAsia 페스티벌’, ‘창의적인 기업 컨퍼런스’ 등의 행사를 열었음.

(www.berlin.de/apforum/apw/apw2007/index.html)

8. ‘Young IFA 2007’ 개최 (베를린)

○ 2007년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베를린 라디오 타워(FunkTurm)가 개최한 ‘세계 멀티미디어 전시회’(IFA: 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에서 베를린市 청소년넷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함.

–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함께 쓰고, 읽고, 토론하기: 청소년넷 편집장이 매일 박람회의 하이라이트를 알려주고 정보를 제공

·흥미진진한 내용 듣기: IFA 관련 뉴스의 배경지식

·재미있는 내용 보기: ‘청소년 IFA’를 내용으로 한 동영상 상영

·스타와의 만남: 영화배우, 코미디언, 밴드 연주자 등이 직접 자신의 직업세계 소개

·스피드 토크 소파: 청소년이 방송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인터뷰 실시

– 이외에 여러 프로그램이 베를린 박람회협회(Messe Berlin),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미디어기구(Medienanstalt Berlin-Brandenburg), 클릭 세이프社, 음악 미디어 공원협회 후원으로 제공됨.

(www.ifa-berlin.de)

(www.jugendnet-berlin.de)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8/23/83967/index.html)

한줄 뉴스

<런던>

– 시의회, 2005년 7월 7일 도심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사건 이후의 市 방재대책 평가보고서 출간

·재난구조기관 간 통신체계 구축 및 운영 개선 강조

– 런던개발재단, 템스강변의 코인거리에 43층 343세대의 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

·아울러 상점, 카페, 사무공간, 교육시설, 레저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용도 건물도 건설

– 서더크區, 런던파크호텔 지역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200호의 서민주택을 포함해 44층의 타워형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승인

9. 청소년 문제 해결에 어른의 책임 강조 (베를린)

○ 베를린市 건강·환경·소비자보호부 장관은, 청소년 문제는 어른의 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소년 및 아동의 음주와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2007년 9월 1일부터 발효된 청소년보호법의 새로운 조항을 소개함.

- 건강·환경·소비자보호부 장관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성인의 책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청소년 보호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함.

- 건강·환경·소비자보호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독일 전체의 15세 미만 아동 및 15~18세 청소년의 알코올 중독 비율이 두 배 증가함.
  ·앞으로 담배 등 흡연 관련 상품은 성인에게만 판매해야 함.

- 베를린 중독예방단체들은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다국어로 만든 정보카드(Info-Cards)를 활용해 실시할 예정임.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7/08/22/83915/index.html)

10. 보육원과 유치원 기능을 합친 어린이집 등장 (도쿄)

○ 일본에서는 부모가 취업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자녀를 보육하는 시설을 보육원이라고 하고, 만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을 교육하는 시설을 유치원이라고 함.

- 최근에는 부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이용하는 시설이 한정되거나 자녀 양육에 불안해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기존 시설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보육시설을 필요로 함.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탄생된 것이 어린이집임.

- 어린이집은 기존의 보육원과 유치원의 기능을 합친 것으로, 네 가지 유형이 있음.
  ·유보(幼保) 연대형: 인가 보육원과 인가 유치원이 연대해 운영하는 형태
  ·유치원형: 인가 유치원이 보육원 기능을 갖춰 운영하는 형태
  ·보육원형: 인가 보육원이 보육이 필요한 아이 외의 아이도 받아들여 유치원 기능을 갖춘 형태
  ·지방재량형: 유치원이나 보육원 어느 쪽으로도 인가를 받지 않은 지역의 교육 및 보육시설이 인정(認定) 어린이집으로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 형태

- 지금까지 보육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시정촌(區市町村)에 신청해야 했지만, 어린이집은 보호자와 어린이집이 직접 계약하고 신청도 어린이집에 직접 함.
  ·보육료도 그동안은 구시정촌이 정한 보육료를 보호자가 구시정촌에 지불했는데,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직접 이용료를 정하고 보호자는 어린이집에 이용료를 지불함.

- 도쿄都에는 2007년 4월에 유보 연대형 어린이집 3곳이 개설됐고, 9월에 보육원형 어린이집 3곳과 유치원형 어린이집 1곳이 개설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7/08/20h8v500.htm)

한줄 뉴스

<베를린>
-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도심 환경구역(Umweltzone) 정보를 독일어, 영어, 터키어, 러시아어 등 다국어로 제공
  ·환경구역에서는 배기가스 기준치를 넘어서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어

- 2007년 9월 12~14일 '제2회 국제 수자원 컨퍼런스' 개최
  ·세계 20개 국가의 수자원 관련 기업 및 단체 관계자 약 130명이 수자원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방안 모색

도 시 환 경

11. 시청 및 산하기관 청사를 녹색빌딩으로 전환 (런던)

○ 런던市는 시청 및 산하기관 청사를 녹색빌딩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민간업체가 녹색빌딩 전환작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힘.

- 현재 런던市가 사용하는 건물은 총 900여 개소인데, 이 중 런던교통공사 본부 등 100개소를 우선적으로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물로 바꿈.
  ·녹색빌딩 전환사업은 2007년 5월 세계 대도시 회의에서 합의한 '클린턴 기후변화 대책'을 런던市에 처음으로 적용하는 사업임.
  ·합의에 참여한 대도시 중 런던이 가장 먼저 실천에 나섬.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해당 건물에 대한 감리기술 현황, 맞춤형 에너지효율 개선방안, 에너지효율 개선목표 달성대책, 건물 유지·운영 방안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 현재 런던시내 상업 및 공공건물은 연간 15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이는 런던市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의 33%를 차지함.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5931.aspx)

>>> 전문가 검토의견

- 교토의정서 발효와 함께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력해옴.
  ·런던市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교통 및 에너지 정책 등 온실가스 관련 시책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이행해온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꼽힘.

– 런던市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시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업보다 우선함.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에너지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이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실효성은 낮은 편임.

·하지만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효과가 크며, 첨단 기술이 아닌 종래의 기술로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서울시도 친환경에너지 선언에서 천명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런던市가 추진하는 그린빌딩 사업처럼 먼저 공공건물부터 그린빌딩으로 전환하고 향후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까지 확대해야 함.

/조항문 도시환경부 연구위원(chohm@sdi.re.kr)

12. '환경 CBO' 발행 (도쿄)

○ 도쿄都는 2002년도부터 중소기업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사채담보증권)를 발행해 왔는데, 2007년 말부터는 일본에서 최초로 '환경 CBO'를 발행하기로 함.

– 환경 CBO는 기존 CBO에 이산화탄소 감소라는 지구온난화 대책을 포함한 것으로, 2007년 6월에 수립한 '도쿄都 기후변동 대책' 중 하나임.

·2007년 11월 초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임.

– CBO는 사채(社債)를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금융의 길이 좀더 폭넓게 열리게 되고, 무담보·무보증이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짐. 여기에 두 가지 특징이 더해짐.

·중소기업의 자원절약 대책을 촉진함으로써 지구온난화에 기여하게 됨.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기금을 활용해 CBO 일부를 도쿄都가 무이자로 구입해 기업의 사채발행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7/08/20h8v400.htm)

>>> 전문가 검토의견

-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국가 단위 움직임 못지않게 선진 외국 도시에서는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
  ·도쿄都의 '환경 CBO'는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민간 기업을 기후변화 대응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수 있어 시행효과가 기대됨.

- 현재 서울시는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 'C40 기후리더십 그룹' 제3차 정상회의 서울 유치, '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 발표, 기후변화기금 조성계획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순차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도쿄都의 환경 CBD를 원용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인 기후변화기금을 2010년까지 약 1000억 원 조성할 계획이므로, 환경 CBO 적용 가능성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만, 환경 CBO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유도할 경우 단순히 기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앞서 해당 기업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대책 수립과 성과 도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 버금가는 기업의 청정경영 능력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김운수 도시환경부 연구위원(woonkim@sdi.re.kr)

한줄 뉴스

- 일본 환경성, 2007년 9월 6일 '제3차 생물다양성 국가 전략(안)' 공표
  ·기본 이념은 과거 100년간 파괴해온 생태계를 앞으로 100년에 걸쳐 회복하겠다는 것임.

- 도쿄都,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도영(都營) 버스에 바이오 디젤 연료 사용
  ·2007년 10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버스 65대에 적용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 감소할 것으로 기대

13. 컨벤션센터를 친환경 빌딩으로 전환 (로스앤젤레스)

○ 로스앤젤레스市는 약 38만㎡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친환경 빌딩으로 바꾸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로스앤젤레스市를 친환경 도시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컨벤션센터 건물에는 3개의 대형 푸드코트와 자동차 5600여 대를 수용하는 주차공간이 있으며, 연간 15만ℓ에 달하는 물과 약 2000만kw의 전력을 사용함.

- 市는 컨벤션센터 건물을 친환경 빌딩으로 바꾸기 위해 수력, 지열, 태양열, 바이오 매스, 풍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를 전체 에너지원의 20% 정도 이용하고 있음.
  ·이 건물에서 사용하는 태양전지판은 100여 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을 수 있음.
  ·최근에는 약 18억 원을 투자해 에어컨의 효율성을 35% 높이고, 전시장의 전등효율을 50%까지 높임.
  ·'Energy Task Force Team'이 연간 733톤의 쓰레기 재활용을 담당함.

- 2008년까지 컨벤션센터 전체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바꾸고, 나아가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에너지·환경디자인 리더십) 인증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관계자가 밝힘.

(downtownnews.com/articles/2007/09/10/news/news02.txt)

14. 애완견 배설물 처리봉투 무료 배포 (베를린)

○ 공공장소에서의 애완견 배설물을 줄이기 위해 베를린市에서 시행 중인 애완견 배설물 처리봉투함 설치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그동안 15만 마리의 개로 인해 매일 최대 50톤의 배설물이 거리에 쌓여 시민의 불만이 많았음.
  ·애완견 배설물을 방치하는 주인은 35유로(약 4만 2000원)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 수가 적어 효과가 크지 않았음.

- 구청과 주민자치단체는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시민이 애완견 배설물을 담아 버릴 수 있는 봉투함을 2006년부터 공공장소에 설치함.
  ·시범적으로 25개 지역에 약 200개의 파란색 봉투함을 설치했는데, 시행 후 공공장소에서 애완견 배설물이 20~30% 정도 줄었음.

(www.tagesspiegel.de/berlin/Stadtleben-Hundekot;art125,2366370)

15. 도쿄만 정화실험 실시 (도쿄)

○ 도쿄都 항만局은 수생 생물을 활용해 도쿄만의 수질정화 실험을 실시함. 都 환경局에 따르면, 도쿄만 북서부에 있는 4개 수역 중 1개 수역만이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을 만족했는데 그것도 기준치가 낮은 근해였음.

- 도쿄만은 다마가와(多摩川) 지역이나 아라가와(荒川) 지역에서 흘러들어 온 생활하수나 산업폐수로 심하게 오염됐음. 1970년대에 하수도 정비 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했으나 이후에는 수질정화가 되지 않아 여름마다 적조가 발생함.

- 수질정화 실험은, 굴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음으로써 굴 1마리당 하루 400리터의 해수를 정화하는 것으로, 자연정화를 통한 재생을 목표로 함.
  ·가로·세로 10m인 뗏목에 굴 4만 마리를 매달고, 굴의 배설물을 섭취하는 해삼도 방류함.
  ·해저에는 광합성으로 산소를 생산하는 아마모(アマモ) 식물을 심고 물고기가 정착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듦.

- 2007년도 예산으로 2000만 엔(약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고 2009년까지 3년간 계속 실험할 예정임.

- 오다이바 해상공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실험시설 만들기'와 '카누를 타고 실험수역 관찰하기' 등의 이벤트도 엶.

(headlines.yahoo.co.jp/hl?a=20070824-00000003-mailo-l13)

(마이니치신문, 2007. 8. 24)

한줄 뉴스

<브라질 쿠리치바市>
- 19km 거리를 자전거로 산책하는 'Bike Night' 행사가 市 전통 프로그램으로 정착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열리며, 참가자는 약 2시간 동안 도심지를 자전거로 산책할 수 있어

- 市 홈페이지에 상업 관련 질의·응답 및 민원 처리시스템을 만들어 영업허가 신청 등 월 7000여 건의 문의 및 민원 처리
  ·이 시스템 도입으로 영업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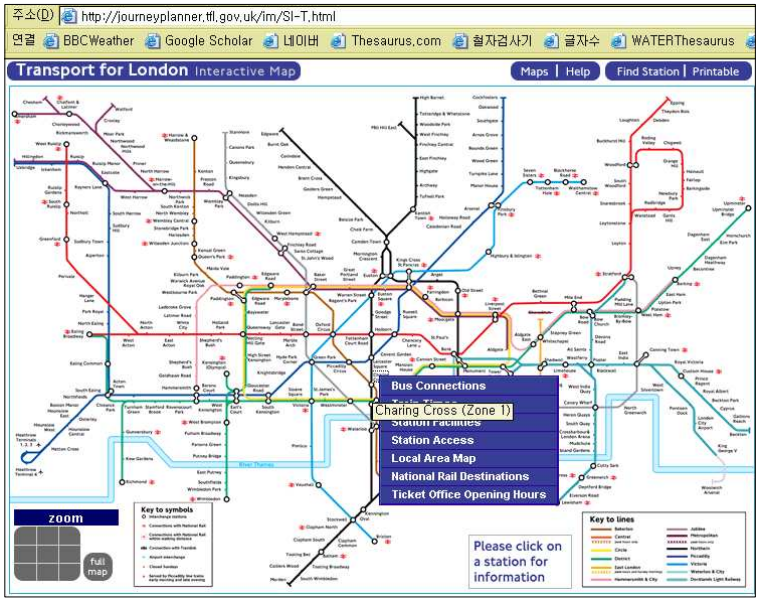
16. 이동경로 검색서비스 강화 (런던)

○ 런던市는 런던교통공사 홈페이지의 이동경로 검색서비스에 인터랙티브(Interactive) 지도서비스를 추가해 도심 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이동경로 검색서비스를 강화함.

- 검색창에 이동지점의 역명이나 우편번호 등을 입력해 검색하던 기존 서비스와는 달리, 인터랙티브 지도 검색에서는 런던시내 지하철 노선지도에서 해당 역명을 클릭하면 역세권 지도, 버스·기차 연결 경로, 역 관련 정보(매표소 위치, 휠체어 이용 안내) 등 관련 교통정보를 지도에서 찾을 수 있음.

·기존 검색방식을 통해 정보를 찾더라도 '마법사' 아이콘을 클릭하면 인터랙티브 지도서비스로 연결됨.

- 인터랙티브 기능이 강화된 버스 노선지도에서는 버스가 지나가는 경로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으면 해당 버스의 운행 시간 및 간격 등이 표시됨.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5942.aspx)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교통공사의 인터랙티브 지도서비스는 개인맞춤형 대중교통정보 서비스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으며, 대중교통정보 서비스 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해 유사 서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건설교통부가 현재 운영하는 통합 대중교통정보 제공 웹사이트 '알고가'(www.algoga.com)는 역명이나 버스·기차 노선, 역 운행 정보에 한정돼 있어 대중교통수단의 상세정보는 부족함.
  ·건설교통부가 현재 개발 중인 u-Transport 기반의 통합 대중교통정보 제공 웹사이트 '타고'(www.tago.go.kr)를 이용해 개인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아직 콘텐츠와 알고리즘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많음.

- 서울시의 경우 교통정보센터(TOPIS)에서 향후 제공할 버스·철도 통합 대중교통 서비스에 인터랙티브 지도서비스와 유사한 콘텐츠를 민관 협력으로 개발하면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기술 측면에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판단됨.

/신성일 도시교통부 연구위원(ssi@sdi.re.kr)

도시계획·건설·주택

17. '디자인대사관' 설치 (런던)

○ 런던개발청이 후원하는 세계적인 도시설계·디자인 행사인 '런던 디자인 축제' 기간 중에 런던市를 대표할 '런던 디자인대사관'(London Design Embassy)이 2년간의 복원과정을 거쳐 새로 개장한 로열 페스티벌홀에 설치될 예정임.

- 런던 디자인대사관은 디자인 축제에 참가하는 세계 각국의 관계자가 교류하는 공간임.
  ·런던 소재 기업과 디자이너들이 바이어들과 상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회선 등 각종 시설을 설치해 비공개 무역 전시장으로 활용함.

- 디자인대사관 설치·운영사업은 런던개발청 창조산업부와 영국 통상부가 후원함. 다수 기업에서 재정을 지원받아 세계 디자인 분야에서 런던의 위상과 역할을 상징화할 수 있도록 최첨단 디자인으로 꾸밈.

- 디자인대사관이 설치될 로열 페스티벌홀은 워털루 다리에 인접한 보존 1등급 건물로, 지난 2년간 9100만 파운드(약 1733억 원)가 투자된 복원사업을 통해 기존 건물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도심 강변의 현대적인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함.

(www.lda.gov.uk/server/show/ConWebDoc.2006)

18. 저소득층에 버스요금 50% 할인 (런던)

○ 런던市는 저소득층에게 특별카드를 발급해 버스요금을 50% 할인해 주기로 함.

- 버스요금 할인정책으로 런던市에 사는 약 25만 명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됨.
  ·독신 부모(Single Parents)에게도 특별카드를 발급하기로 함.
  ·특별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 연금관리부서(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와 지역 일자리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또한 런던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07년 9월 30일부터 버스요금을 10% 내리기로 함.

- 런던市가 버스연료를 베네수엘라에서 20% 저렴하게 사고 베네수엘라에 교통정책과 도시관리에 관한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기로 한 협약 체결로 버스요금 할인정책이 가능하게 됐다고 市 관계자가 말함.

(www.london.gov.uk/londoner/07sep/p6a.jsp?nav=news)

방 재 · 안 전

19. 수도관 내진화 추진 (일본)

○ 최근 일본은 지진으로 인한 수도관 파손으로 단수(斷水)가 장기화돼 수도관 내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4년까지 배수관 등 수도관 내진화율을 100%로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07년 현재 6.8%에 지나지 않음.

- 수도 사업은 대체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므로, 내진화를 서두르면 수도요금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음.
  ·내진 수도관은 일반 수도관에 비해 약 1.5배 비싸며, 1km를 정비하는 데 약 1억 엔(약 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함.

- 일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관 정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보조 비율이 정비 예산의 1/3에 그쳐 지방자치단체가 정비를 주저하는 실정임.

- 일본 정부는 10년 전부터 내진화를 진행해 온 교량 등 주요 지점의 상수도관뿐 아니라 배수지의 내진화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임.

(요미우리신문, 2007. 9. 7)